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2024. 12.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2024. 1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수행기관 :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 2023년 센터에서 추진한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
조사」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임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07
제2장 데이터로 본 경기북부 공익활동 현황	08
제3장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설문분석	13
제4장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인터뷰 분석	27
제5장 인터뷰 질적분석	37
제6장 결론	49
부록 조사연구 질문지	53
참고문헌	57

1 연구개요

연구목적

-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 설립과 맞물려 경기북부지역 공익 활동가 및 단체의 실태파악 필요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현장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 센터 운영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연구범위

- ▶ 2023년과 2024년에 나눠서 경기북부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가 조사 연구 수행
 - 2023년 :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2024년 : 파주, 고양, 구리, 남양주, 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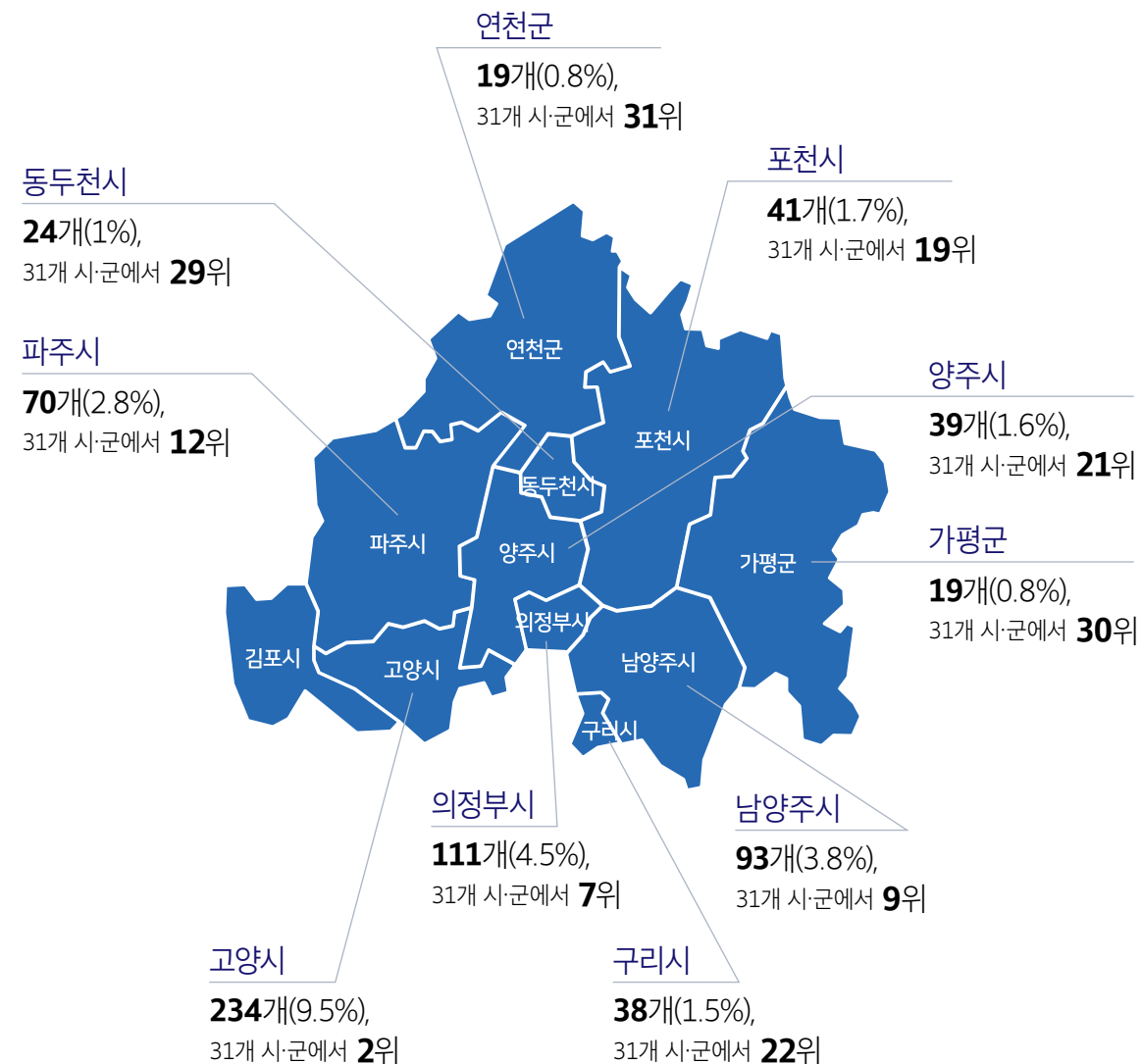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시민사회, 경기북부지역 정책연구자료, 지역데이터 등 수집 및 분석
- ▶ 인터뷰 : 초점집단인터뷰 및 심층인터뷰 진행

2 데이터로 본 경기북부 공익활동 현황

사단법인 시민(202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시·군 소재지별 등록 현황



<표 1> 경기북부 「시민사회활성화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구분	시민사회활성화 관련 조례 제·개정			비고
	완료	추진 중	미추진	
고양시		○		
남양주시	○			2021년 미추진, 2024년 제정
파주시			○	
의정부시		○		
양주시		○		
구리시	○			시민공익활동촉진
포천시	○			공익활동촉진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		

출처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2021) 및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11. 기준)

<표 2> 경기 북부 10개 시·군 시민사회 활동 지원 조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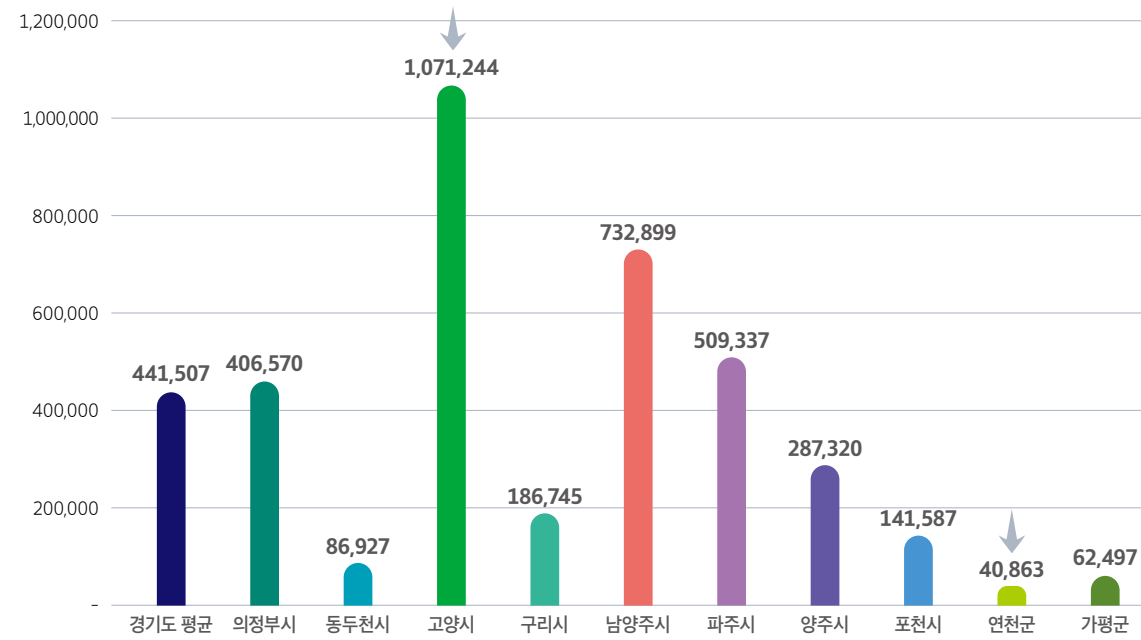
연번	시·군	조례제정여부	
		1. 비영리단체 지원	2. 민관협치
1	고양시	×	×
2	남양주시	×	×
3	파주시	×	○
4	의정부시	×	○
5	양주시	×	×
6	구리시	×	×
7	포천시	×	×
8	동두천시	×	×
9	가평군	×	×
10	연천군	○	×

출처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2021) 및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11 기준)

경기도 평균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수

(2024.10.)

- 인구는 고양시가 가장 많고 연천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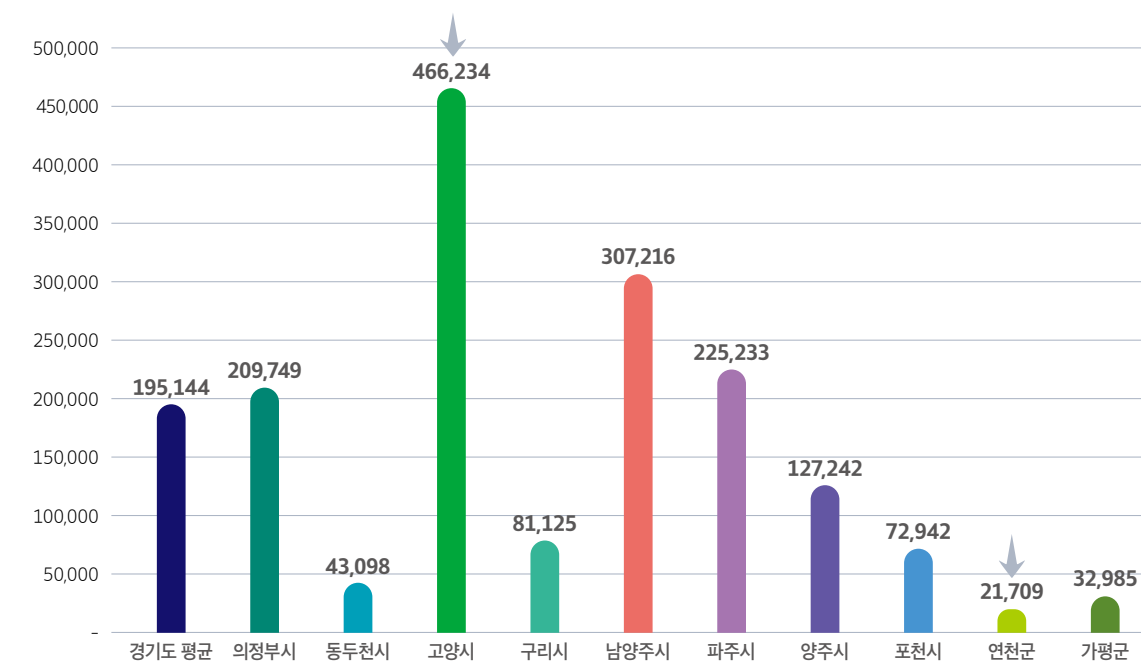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도 평균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세대수

(2024.10.)

- 세대 역시 인구와 같이 고양시가 가장 많고 연천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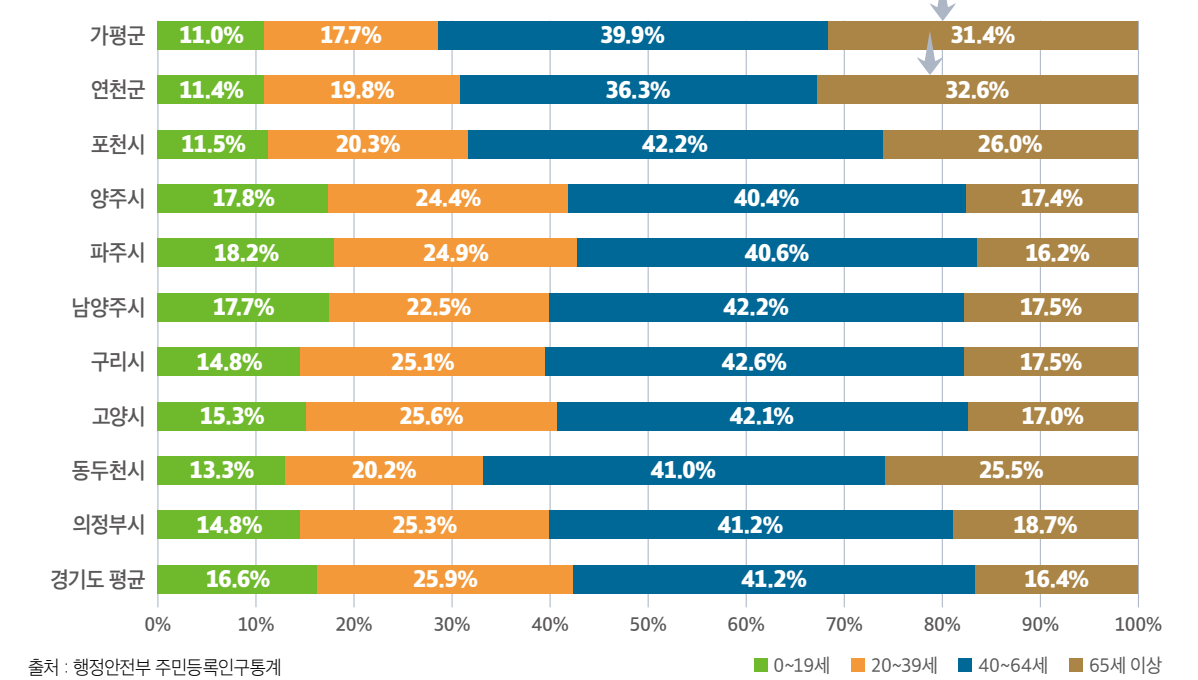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도 평균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연령별 인구 현황

(2024.10.)

- 가평군, 연천군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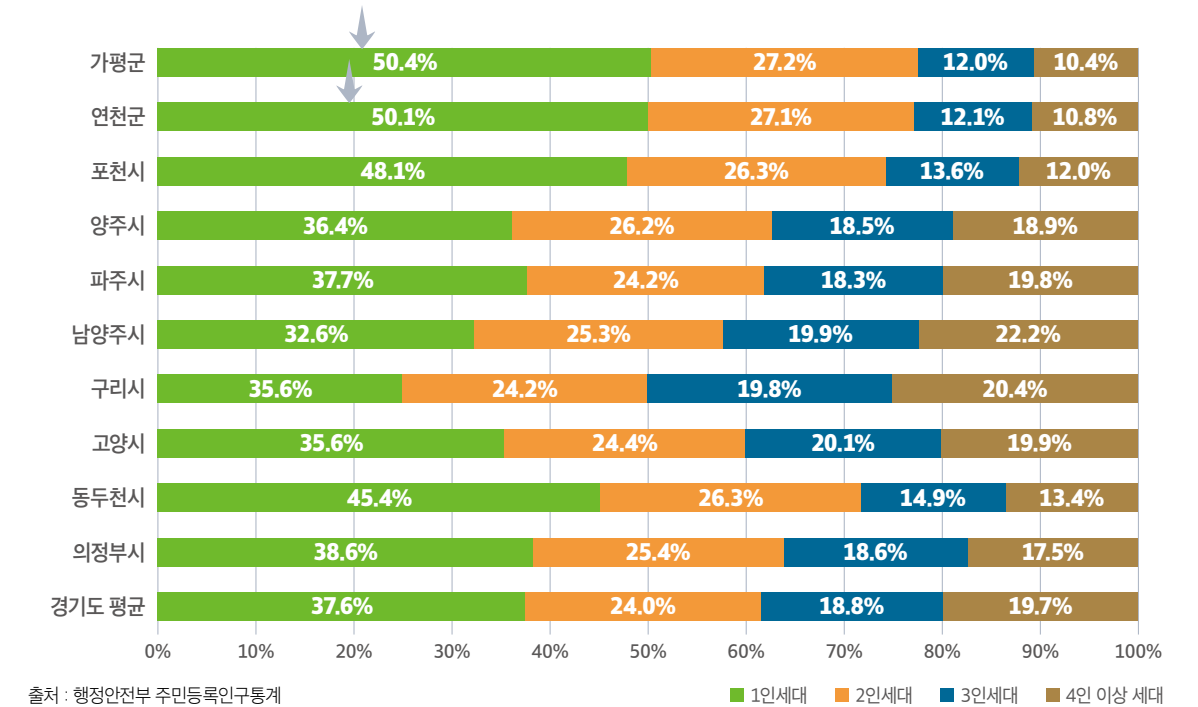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도 평균 및 경기북부 10개 시·군 세대원수별 세대 현황

(2024.10.)

- 가평군, 연천군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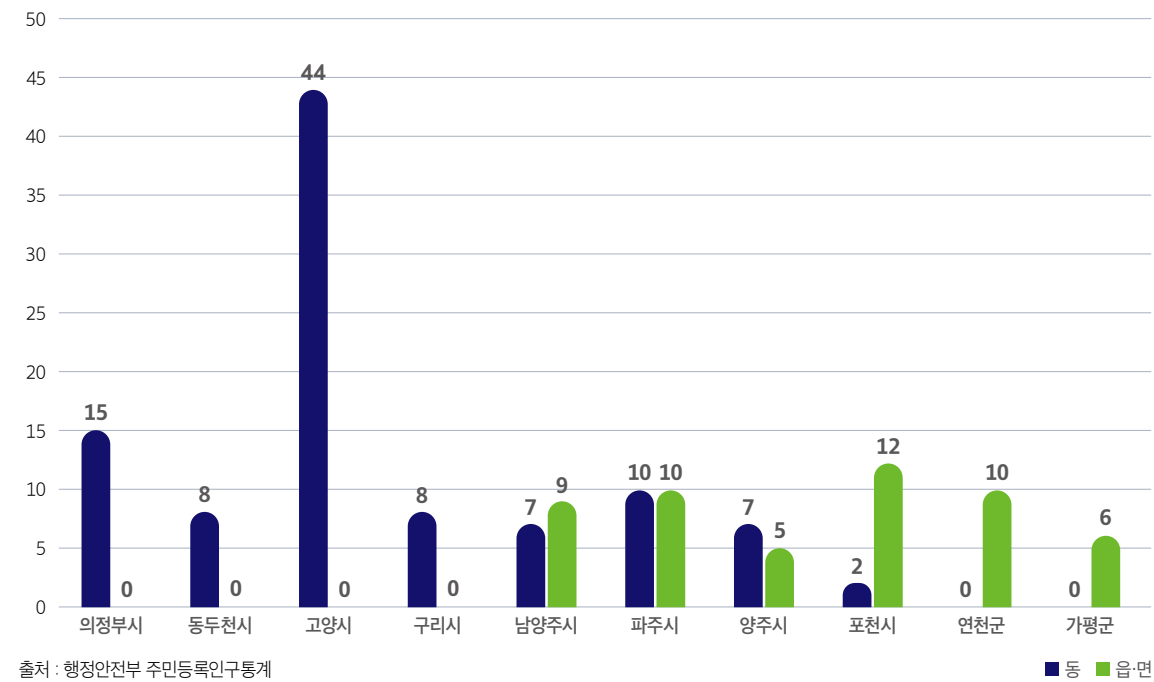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경기북부 10개 시·군 읍·면·동 현황

(2024.10.)

- 4곳은 동만, 4곳은 읍·면·동이, 2곳은 읍·면만 있어, 경기 북부는 다양한 형태의 시·군·구가 위치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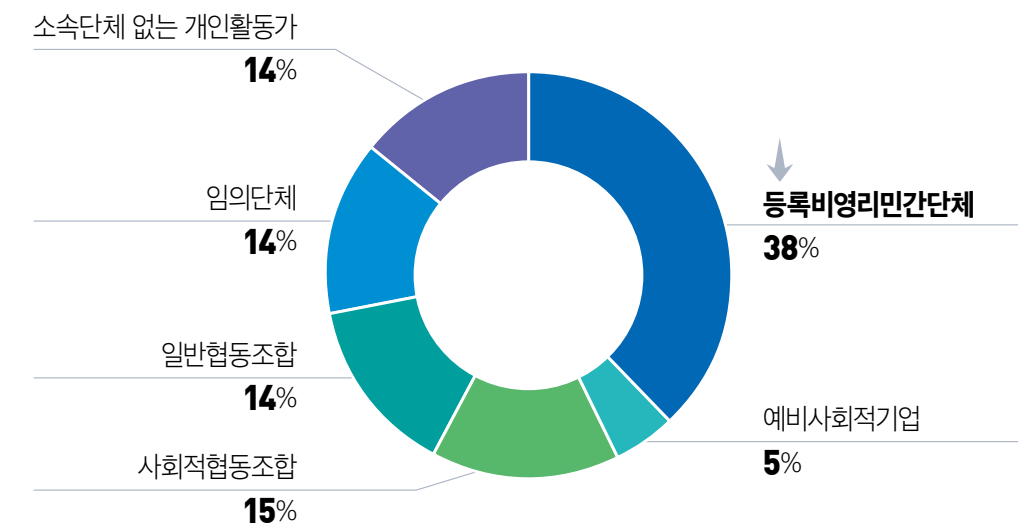
3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개요

- 기간 : 2023년 11월
- 대상 : 경기북부 10개(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가평, 고양, 파주) 지역 공익활동가
- 참여 : 총 58명 참여(8명의 경우, 결측치가 많아서 제외하고 50명만 분석)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설문

자료 1 단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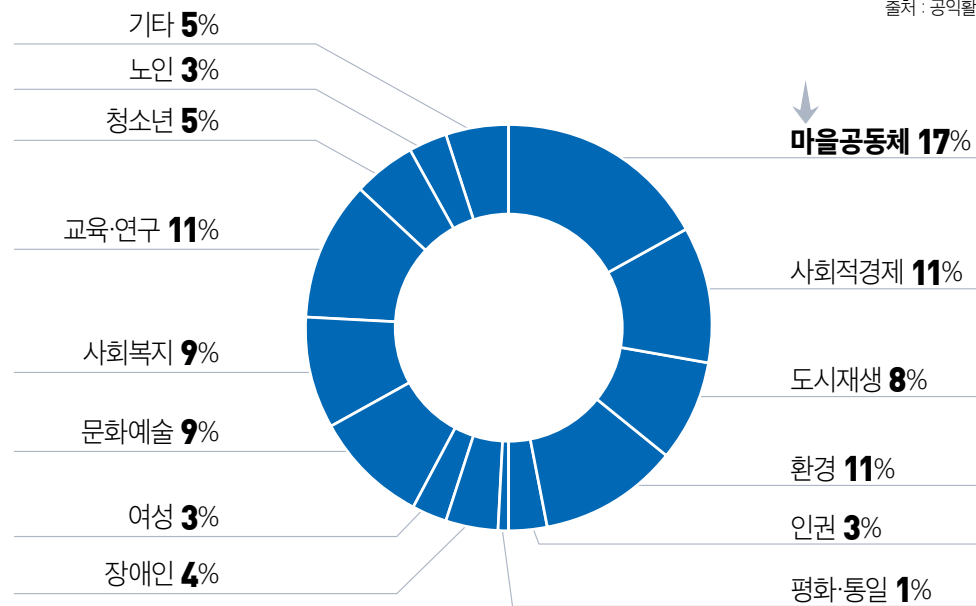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38%)가 가장 많지만 사회적경제조직(34%)도 많이 참여
임의단체와 개인 활동가도 전체 28%로 높게 나타남

자료 2 활동영역 (복수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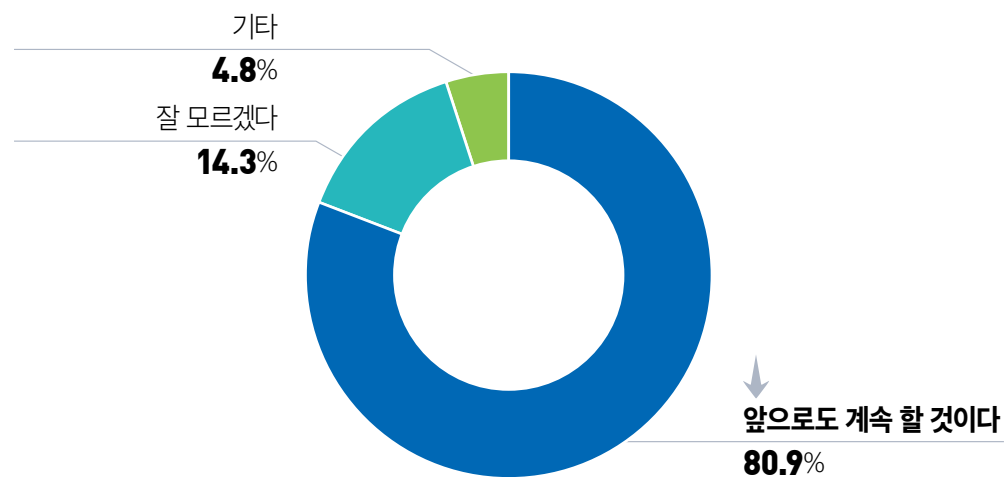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환경, 교육·연구 분야가 높게 나타남

자료 3 향후 공익활동의 지속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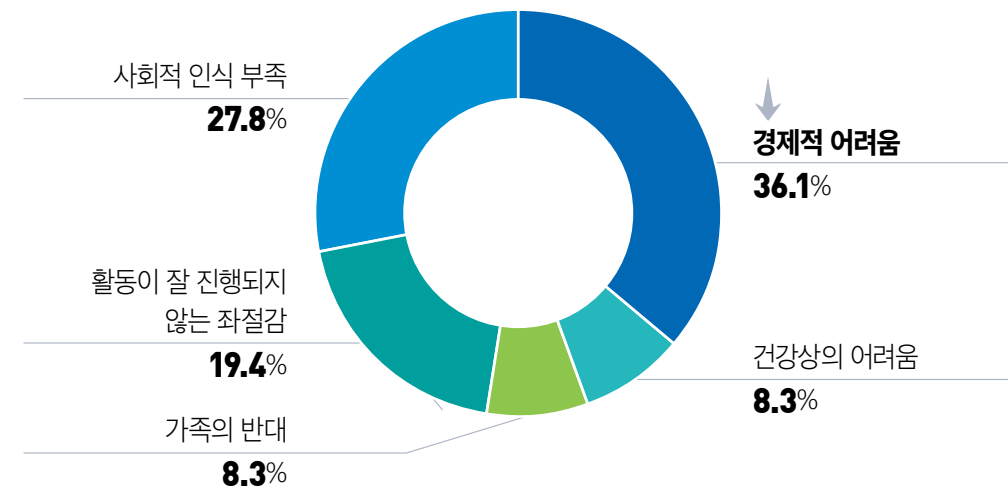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향후 공익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 4 귀하의 공익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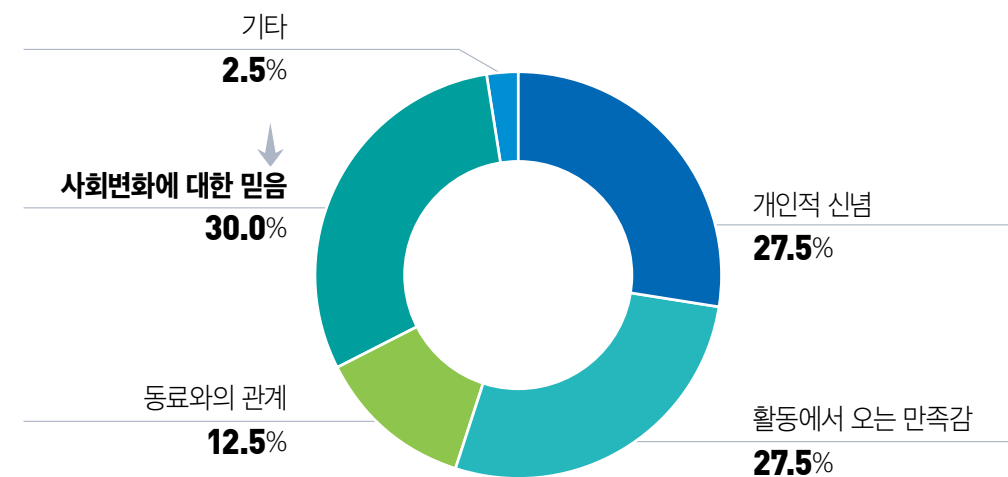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공익활동의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 부족 순임

자료 5 귀하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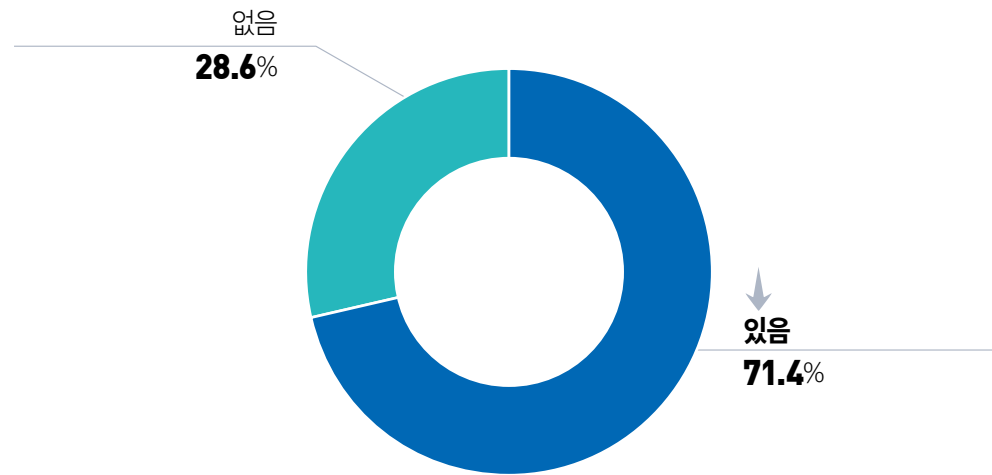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에 대한 믿음이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 개인적 신념과 활동에서 오는 만족감이 동일하게 나타남

자료 1 소속 단체 실무자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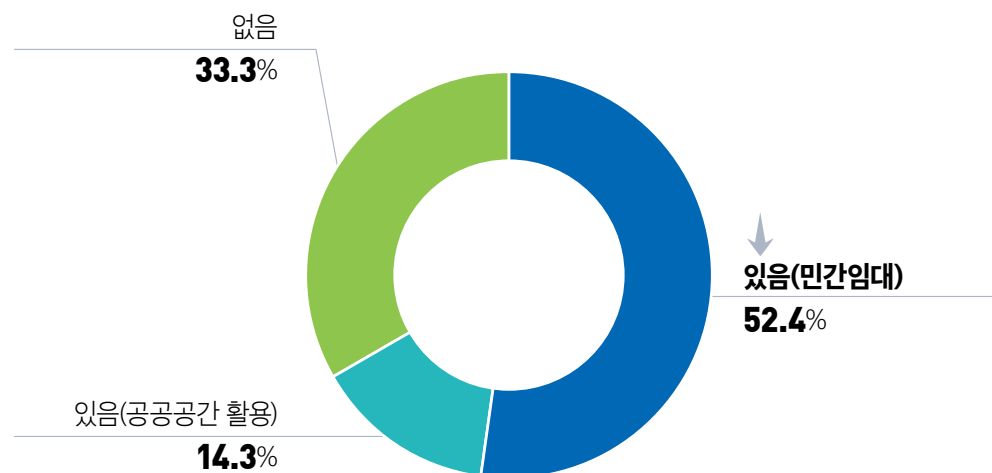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실무자가 있다**고 응답

자료 2 소속 단체 전용 공간(사무실, 회의실 등)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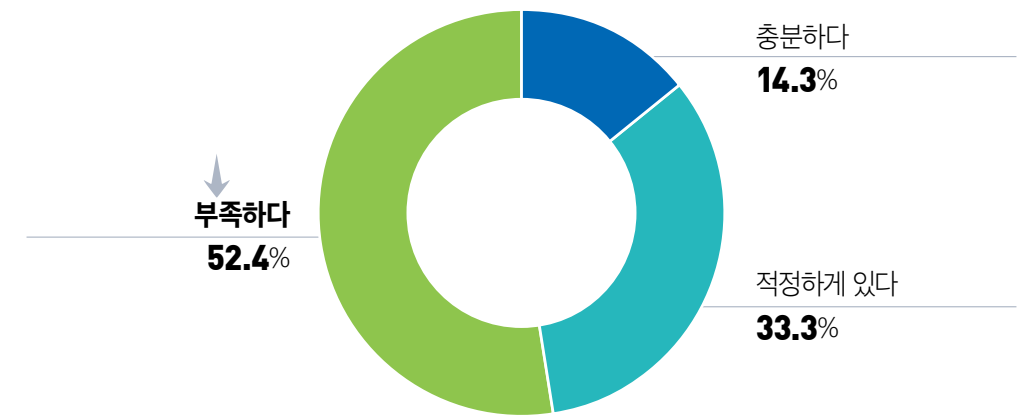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공간은 실무자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3 소속 단체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노트북, 빔, 프린터 등) 구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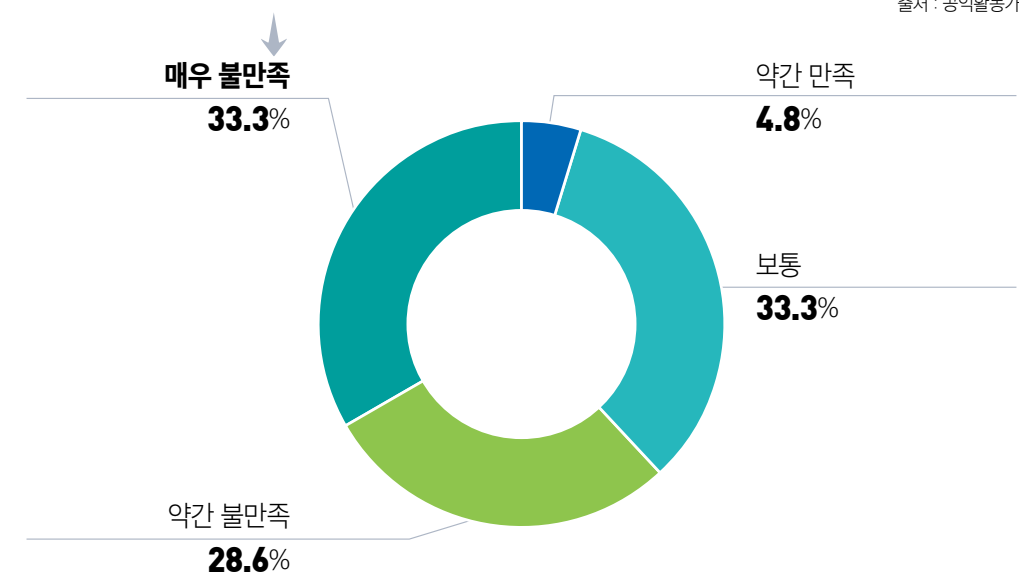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설비 부족에 대한 입장은 “충분하다”와 “부족하다”가 **비교적 팽팽**하게 나타남

자료 4 활동 지역 내 행정과의 거버넌스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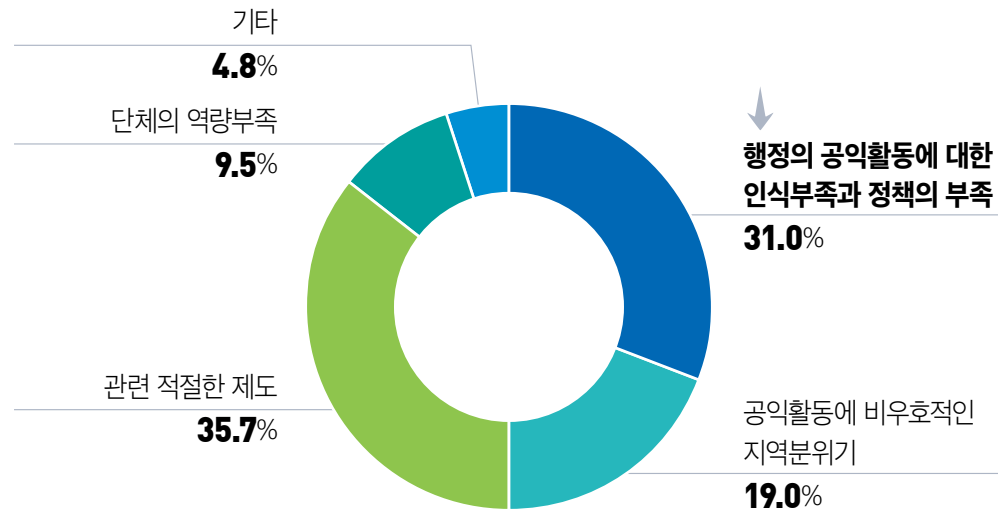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지역 내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응답자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10 활동지역에서 행정과의 거버넌스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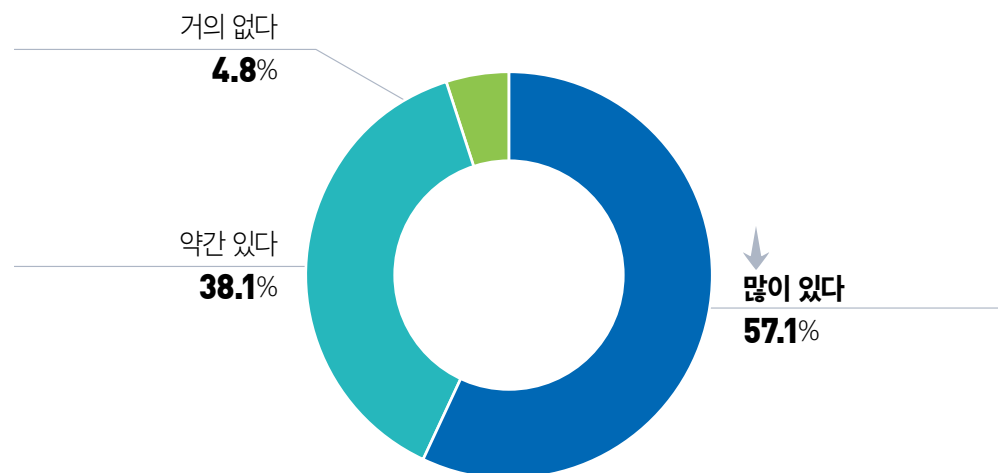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제도와 정책, 인식부족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비우호적 분위기가 19%로 나타남 : 시민단체 역량부족도 10% 육박

자료 11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공동 의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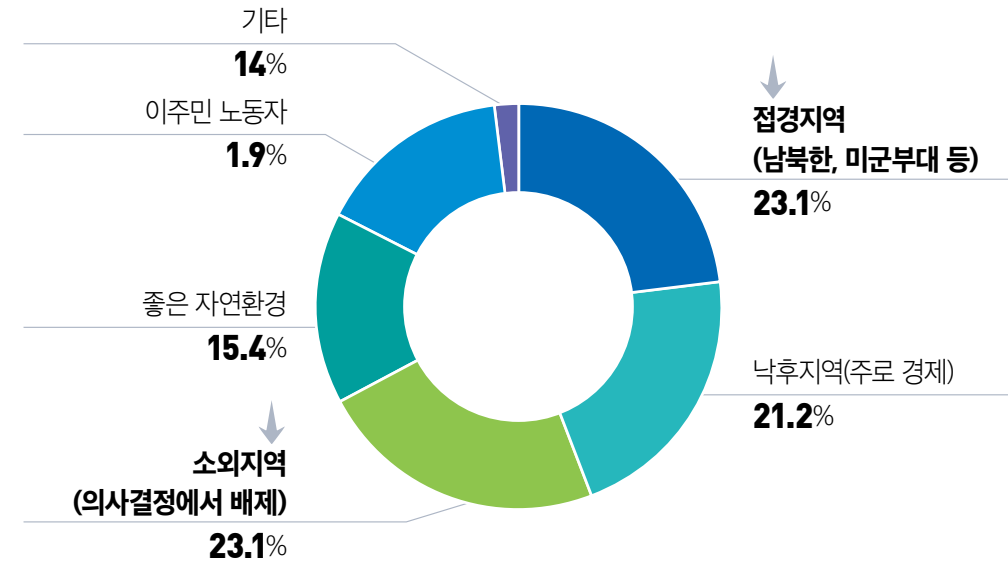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경기북부의 공동의제에 관해서는 90% 이상이 있다고 응답

자료 12 경기 북부 지역의 공동 의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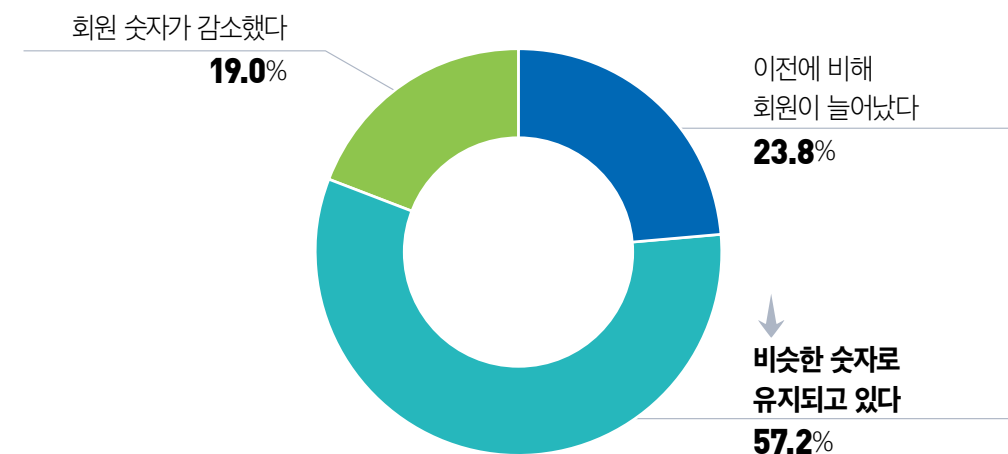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접경지역 = 소외지역 > 낙후지역 > 좋은 자연환경 > 이주노동자 순으로 나타남

자료 13 소속 단체의 회원 숫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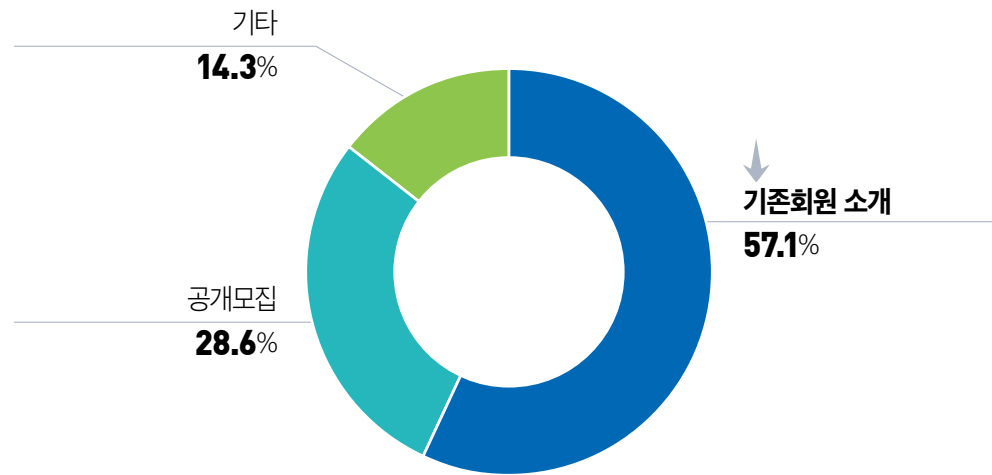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회원 숫자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자료 12 신규 회원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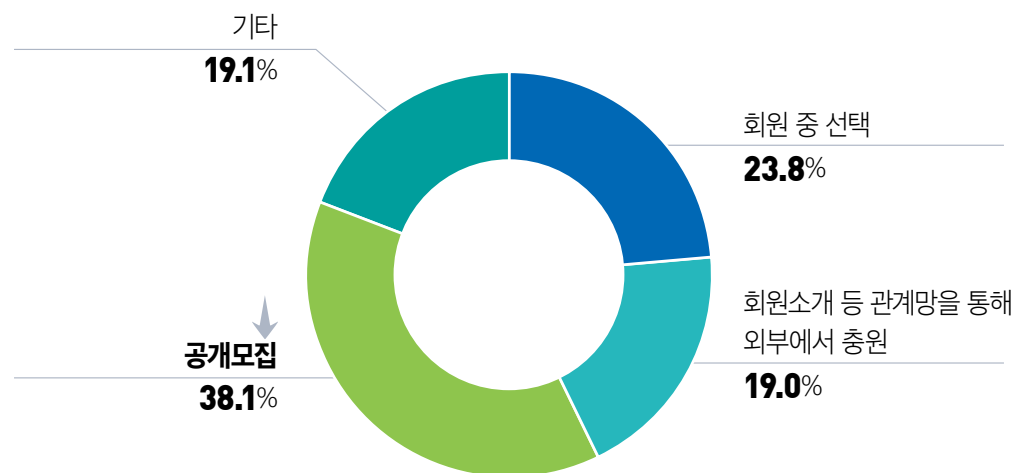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주로 기존 **관계망**을 통해 **신규회원**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자료 13 상근자는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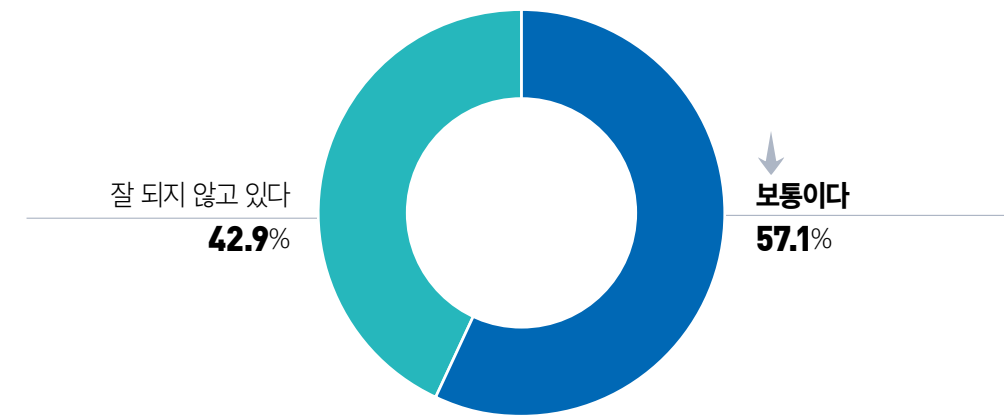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상근자는 **공개모집** 형태가 제일 많지만 회원과 관계망 내에서 선택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14 신규 회원 및 상근자의 충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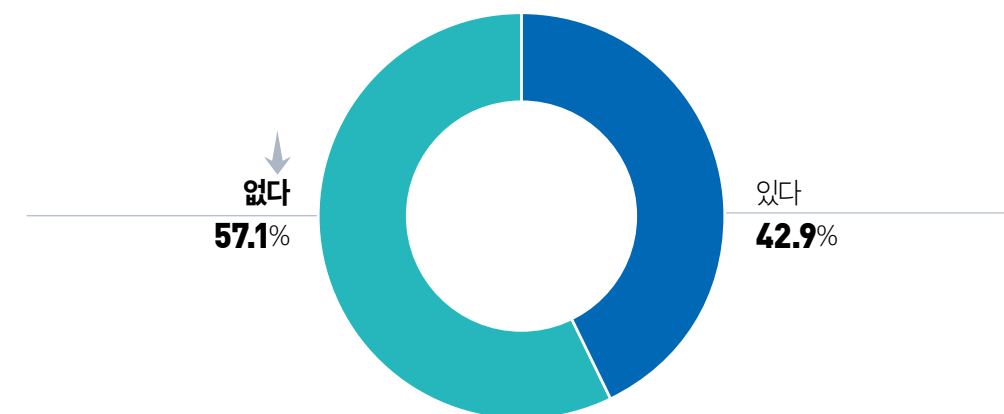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보통과 잘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음. 즉, 신규회원과 상근자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음

자료 15 조직 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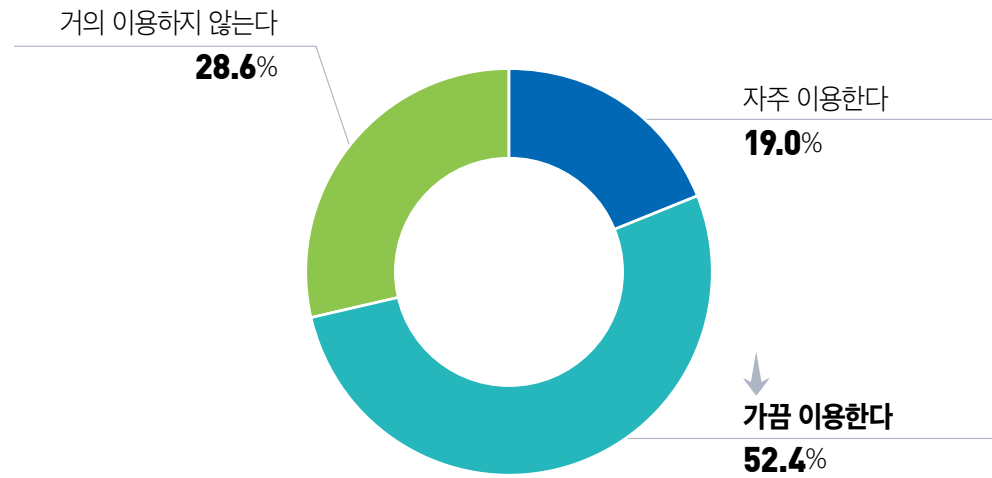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조직 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18 조직 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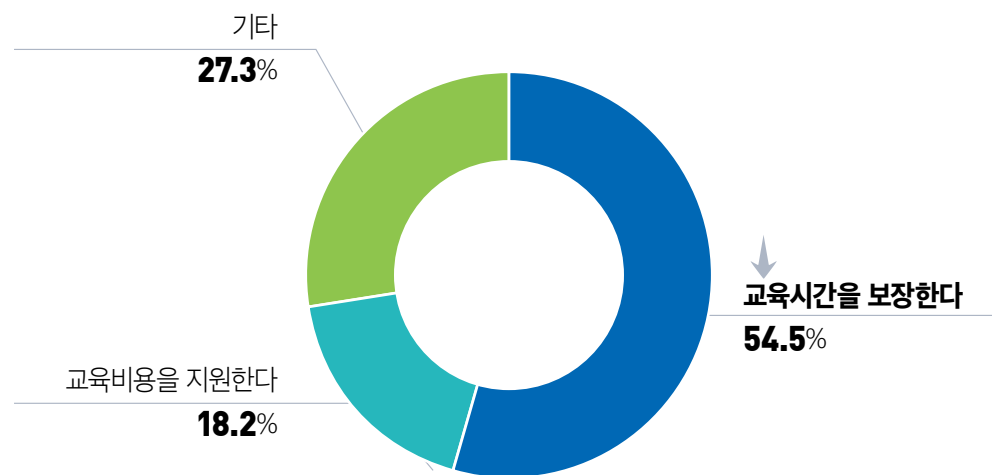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조직 외부의 프로그램 **활용도 저조한** 상황임

자료 19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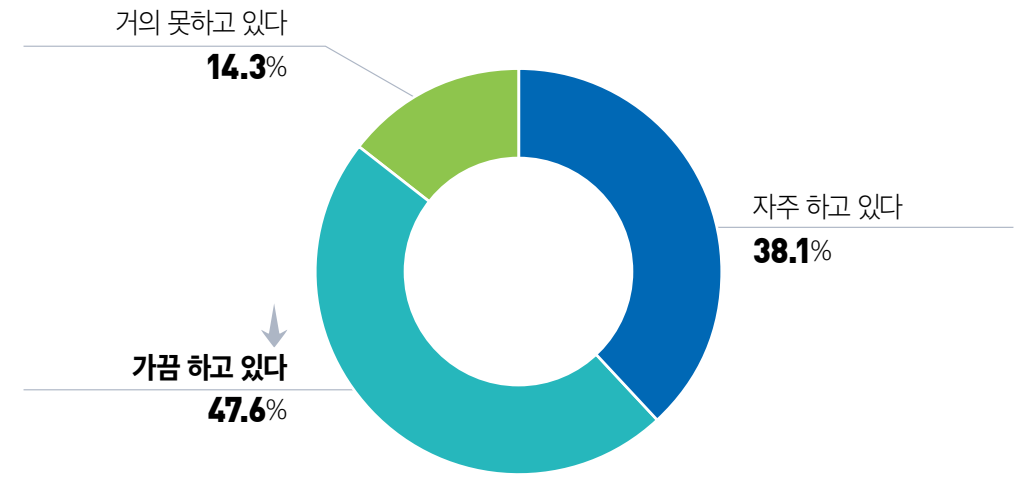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교육시간을 보장하는 정도의 **소극적 지원**에 그치고 있음

자료 20 활동지역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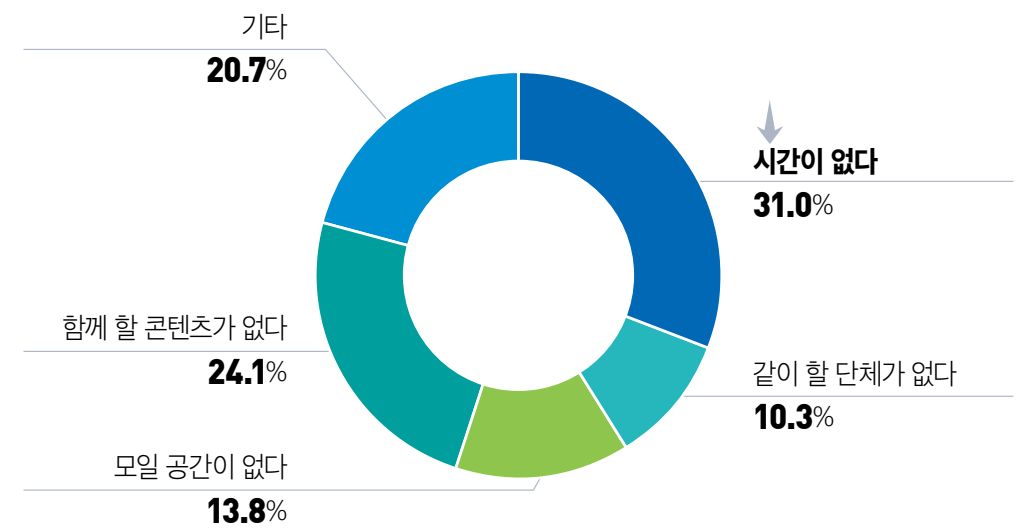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자주하고 있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나타남

자료 21 활동지역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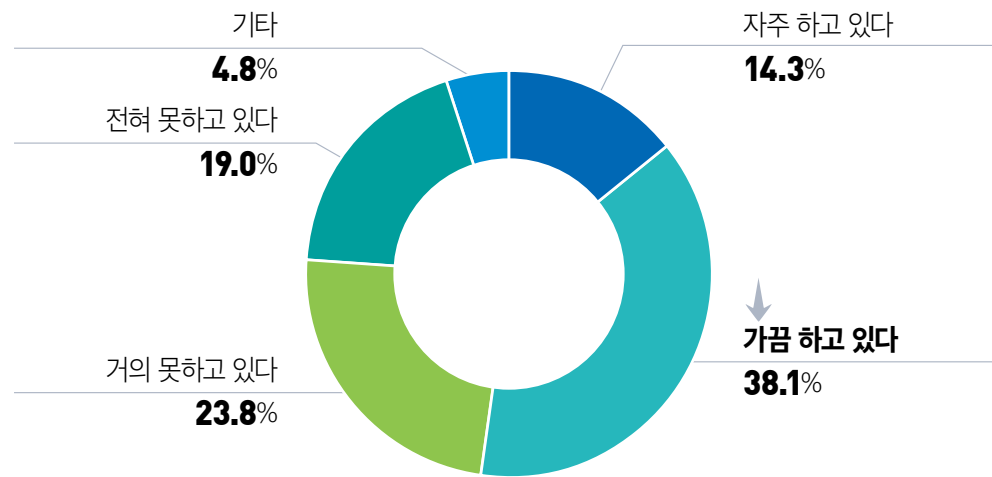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시간 > 콘텐츠 > 공간 부족 순으로 나타남

자료 22 경기북부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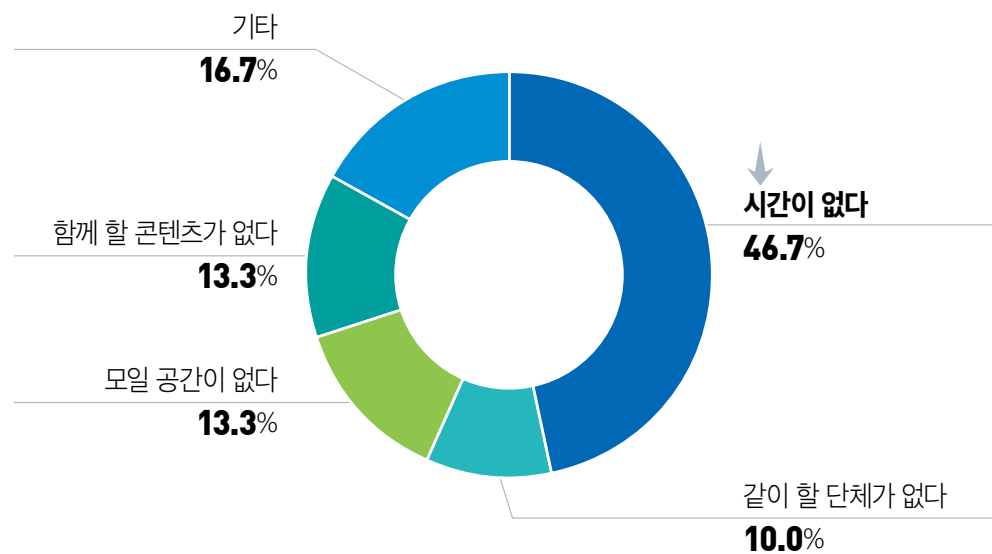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경기북부에서는 기초지자체 내부보다 더욱 **네트워크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남

자료 23 활동지역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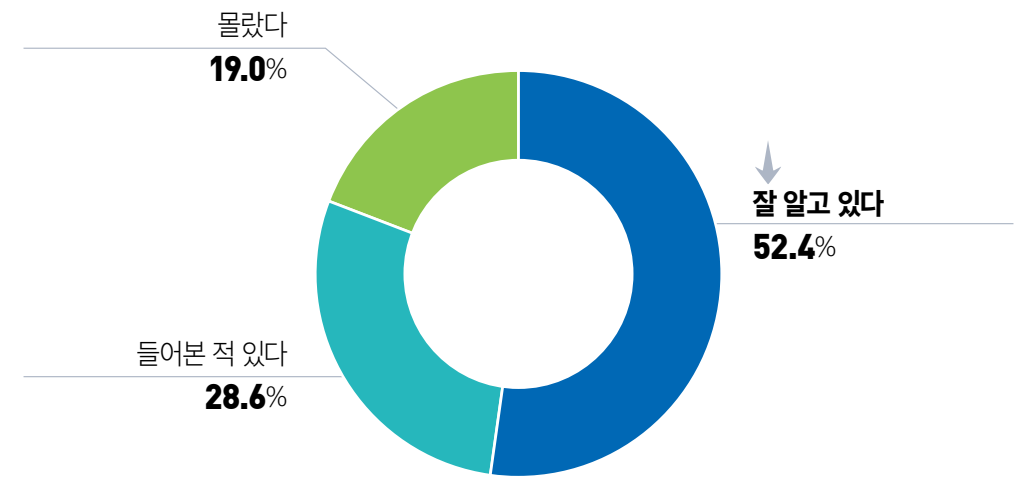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시간 > 콘텐츠 = 공간 순으로 앞과 비슷하지만 특히 시간 부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자료 2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복부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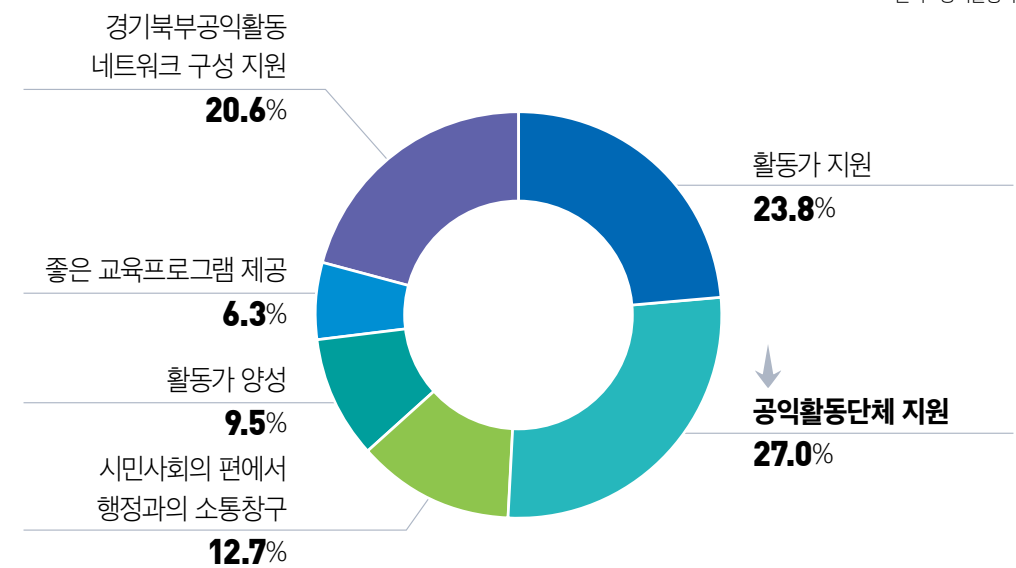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를 약간 넘어서 더 많은 **홍보 필요성 제기**

자료 25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복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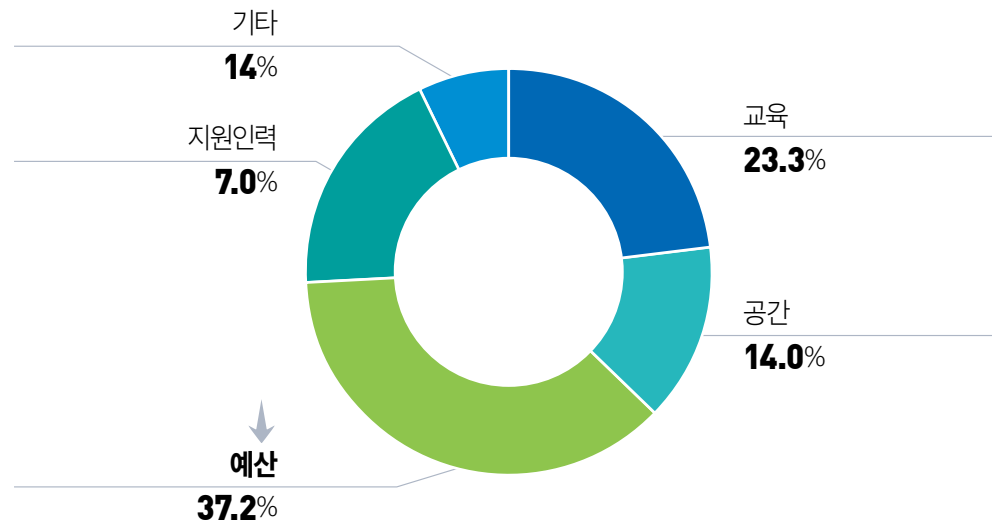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로 **공익활동단체 지원**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활동가 지원 > 경기북부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성 지원 등 순으로 나타남

자료 2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이 있다면?

출처 : 공익활동가 설문조사



예산지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교육 > 인력 > 공간 > 기타 순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소결

- ▶ **지난 10년간 공익활동영역에서 가장 많이 팽창한 분야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영역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음
- ▶ **공익활동을 지속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개인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80% 이상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음**
 -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믿음 > 활동에서 오는 만족감 = 개인적 신념 > 동료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변화가 더딘 경기북부의 이미지와 달리 일정하게 활동을 통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
- ▶ **단체운영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민관 거버넌스 > 공간부족 > 설비부족 > 실무자 부족 순으로 나타남**
 - 민관거버넌스와공간의 어려움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간부족 자체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일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기 북부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이슈
- ▶ **경기북부 공동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 협력적 네트워크 잠재력이 높지만 지역 내, 경기북부 내에서 네트워크 활동이나 경험이 활발하지 않아 이를 촉진하는 계획과 전략 마련이 필요**
 - 시간, 콘텐츠, 공간이라는 세 가지 제약 요소를 돌파하기 위한 속의 필요. 아울러, 콘텐츠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핵심이며 또한 공간의 확보가 시간의 한계를 줄이는 방안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아 향후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주요 사업거리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로 압축될 수 있음**
- ▶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안팎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향후 센터가 공익활동가 및 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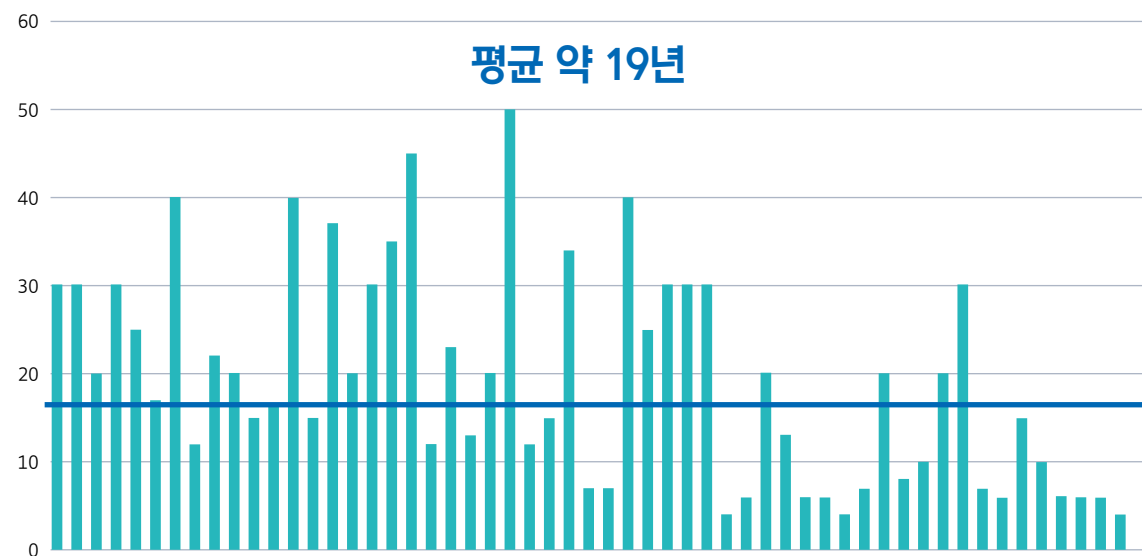
4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인터뷰 분석

인터뷰 개요

- 2023년 : 의정부,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공익활동가(40명, 경원축)
- 2024년 :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공익활동가(38명, 비경원축)
-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초점집단인터뷰(FGI) 및 심층인터뷰

공익활동 기간

- 평균 19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¹⁾
 - 경원축 : 평균 14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공익활동가 인터뷰 진행 (상대적으로 활동기간이 짧은 청년활동가 포함)
 - 비경원축 : 평균 25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공익활동가 인터뷰 진행 (인터뷰에 청년활동가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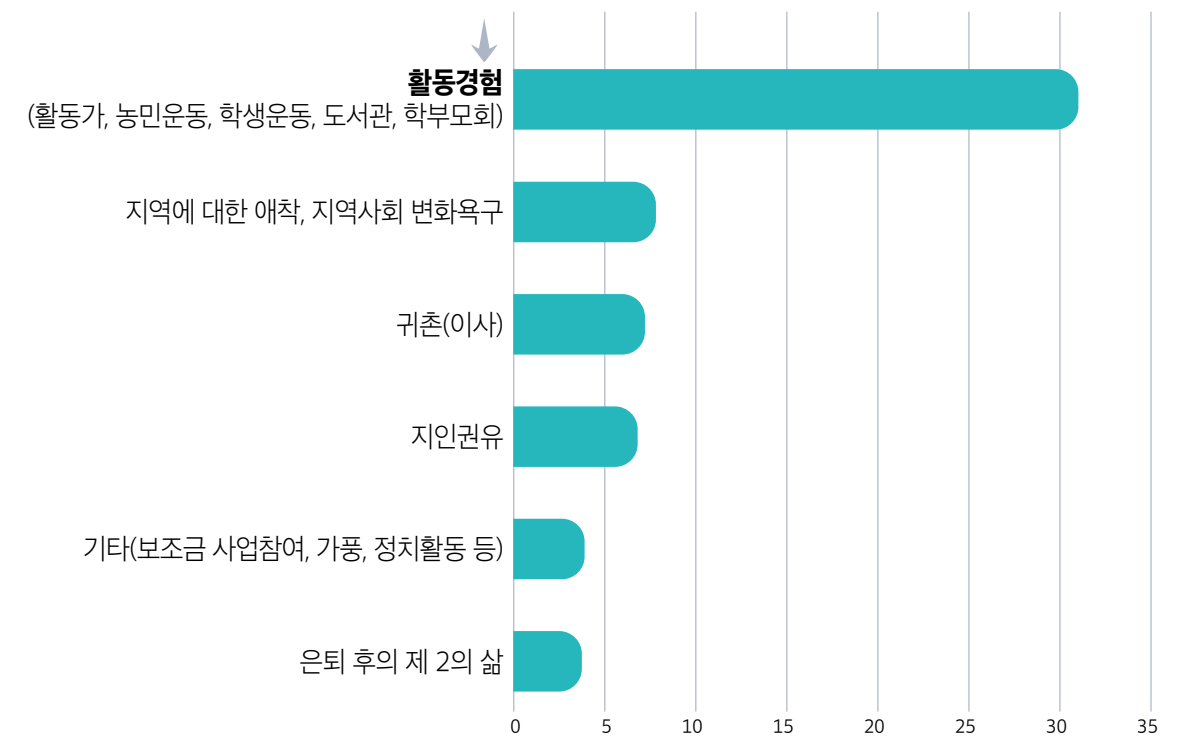
1) 경원축은 과거 경원선 철도로 연결된 곳으로서 의정부,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를 비경원축은 경기북부에서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을 뜻함

활동내용

- 다양한 활동 기반을 가진 공익활동가 인터뷰 진행
 - 접경지역과 도농복합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농민운동과 평화운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는 특징
 - 교육활동, 네트워크 활동, 환경운동, 공론장운영, 노동인권활동, 의정감시 모니터링, 마을공동체 활동, 장애인 복지, 시민자치, 청년활동, 미디어, 평화운동, 공동체운동, 에너지협동조합, 적정기술운동, 로컬푸드운영/귀농귀촌지원활동, 대안 농업, 농민운동 등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

- 학생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 등 운동 기반 공익활동과 학부모/교육문제/마을공동체 등 경험 기반 공익활동의 흐름이 양대 축
- 경기북부에서 출발하고 지속하는 토착형 공익활동과 귀농·귀촌, 이주 등을 통한 유입형 공익활동으로 나뉨
 -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지만 보조금사업을 통한 유입 사례도 확인



활동후의 변화

개인적인 역량강화

경원축

화를 덜 내게 됨 / 개인적 성장, 보람 / 역량강화 (발표, 글쓰기...) / 오랜기간 지역활동한 사람들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그들의 노하우 → 개인의 성장 / 역량강화 / 내면의 성장 / 실무능력 향상 / 계획서 작성의 달인/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 / 성취감/ 보람 / 일을 수행하는 단계에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위치, 노하우 상승 / 보람(도움을 주고 받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비경원축

시야가 넓어짐/이해의 폭이 넓어짐 / 개인적 성장, 보람 / 역량강화 (전문적 영역으로 발전, 공모서류, 예산집행 등) / 경험을 채워나감다 보니깐 사람으로 많이 성장 / 역량강화 / 내면의 성장 / 실무능력 향상 / 계획서 작성의 달인 / 배우는 과정을 통해 성장 / 성취감/ 보람 / 실질적으로 많이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 / 활동을 통한 기능적 측면 (홍보 방법 등) / 리더로서의 성장

인식변화

경원축

사회를 변화시켜야한다는 생각에서 개인 변화가 우선임을 알게 됨 / 제도변화 보다는 개인의 변화가 우선 / 이해의 폭과 관심사 확장 /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 시민으로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자 노력 / 외지인으로 들어왔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비경원축

공동체와 더불어 살려고 하는 민주적인 사람/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중요 / 이해의 폭과 관심사 확장 /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 시민으로 사회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 /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자 노력 /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 전파 / 외지인으로 들어왔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공동체의식 강화 및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

경원축

공동체의식 강화 /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에 대해 확장 / 공동체 의식 강화 /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아짐/지역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짐 / 지역문제에 대해 단편적 접근에서 확장된 현안에 대해 다양한 관심/ 정책 과정에서의 이해도 높아짐

비경원축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 지역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짐 / 문제를 문제로 두지 않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 /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아지고 부조리한 일 개선에 참여

사회적 변화

경원축

시민력 상승, 제도 변화(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 행정과 학교의 폐쇄성 다소 유연화 / 농민 활동들이 지역사회와 연결 / 장애인 운동의 환경 변화 / 민·관 관계를 통한 전략 마련

비경원축

시민력 상승, 제도 변화(조례 개정 등) / 환경이슈 공동대응 경험 축적 / 농민활동들이 지역사회와 연결 / 장애인 운동의 환경 변화 /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변화

단체의 성장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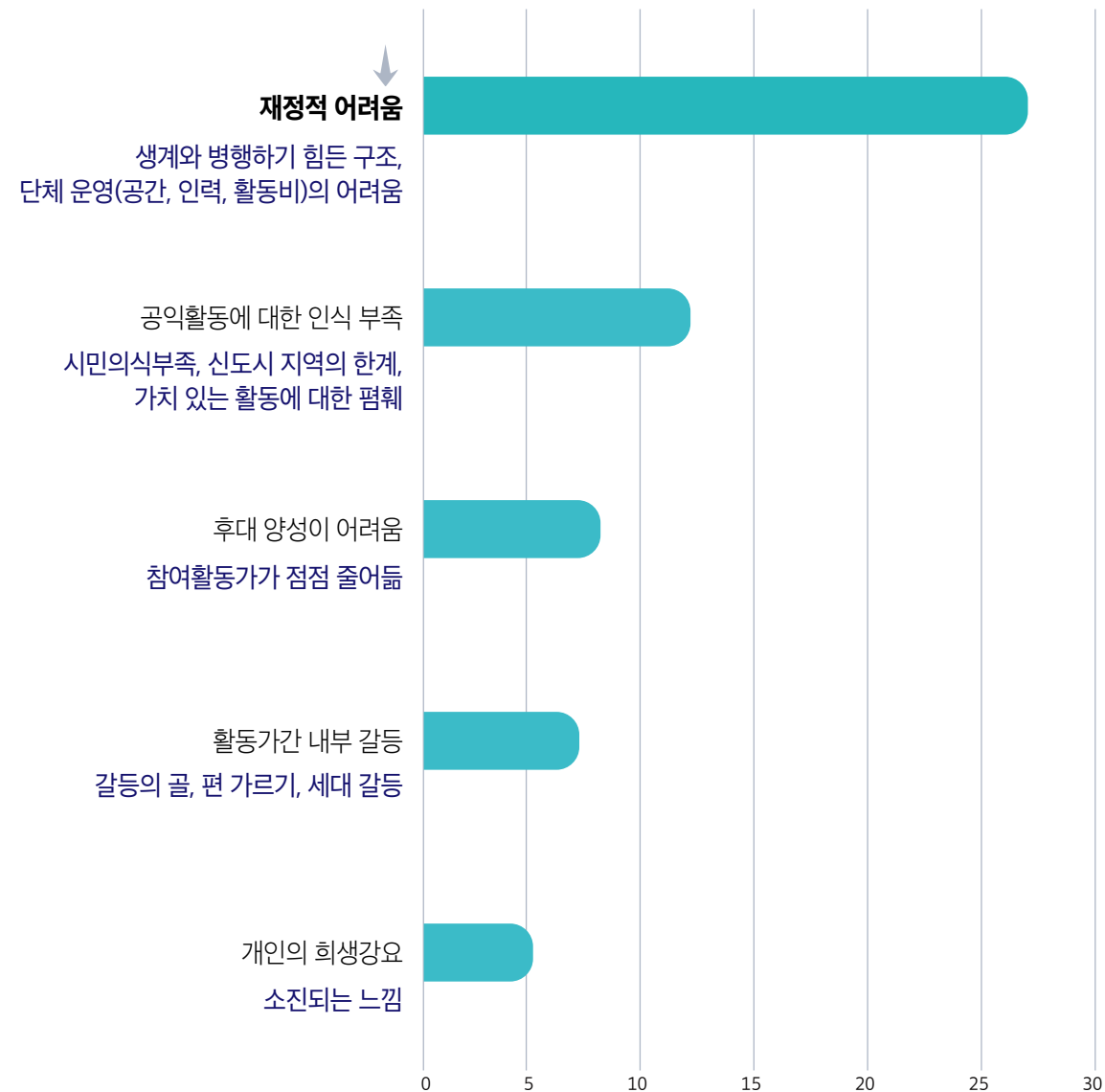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 청년활동의 규모 성장 / 네트워크 확대 / 시민공동 행동의 성공의 경험 / 성공의 경험축적

개인 > 공동체와 사회 > 소속단체 순, **공익활동을 통해 개인이 가장 크게 성장**했고
공동체와 사회 변화는 그 다음이며 단체의 성장이 제일 더딘 것으로 볼 수 있음.

활동의 어려움

▶ 개인적 성장의 높은 만족감과 병행하여 다른 요인보다 개인적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남(경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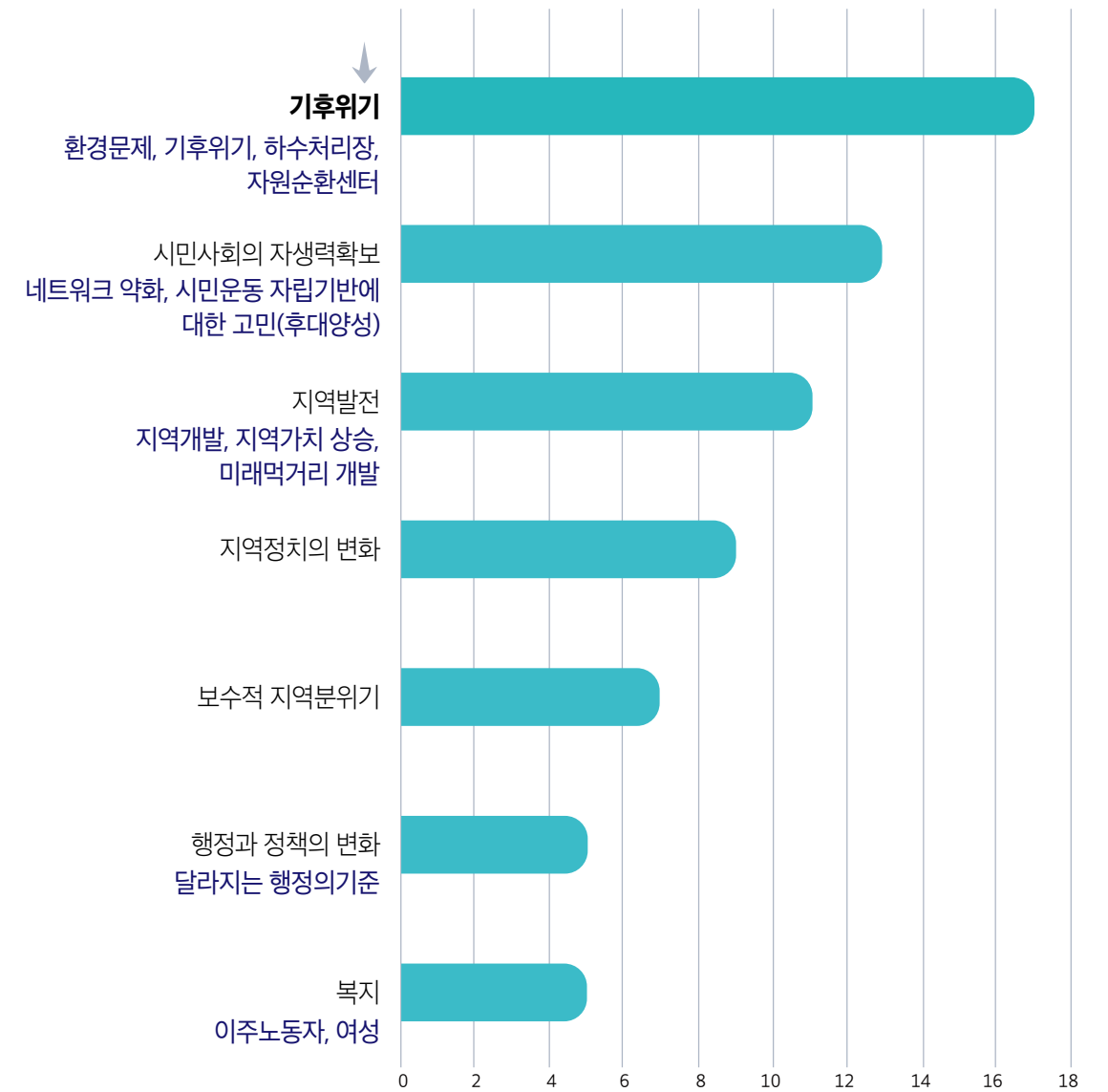
- 비경원축의 경우, 개인적 측면의 어려움 보다는 공익활동단체 운영 어려움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가 더 큰 것으로 확인
- 비경원축의 경우, 활동가vs활동가, 주민vs활동가, 활동가vs지자체(행정) 등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핵심문제

▶ 경원축의 경우, “지역”의 총체적 변화에 대한 욕구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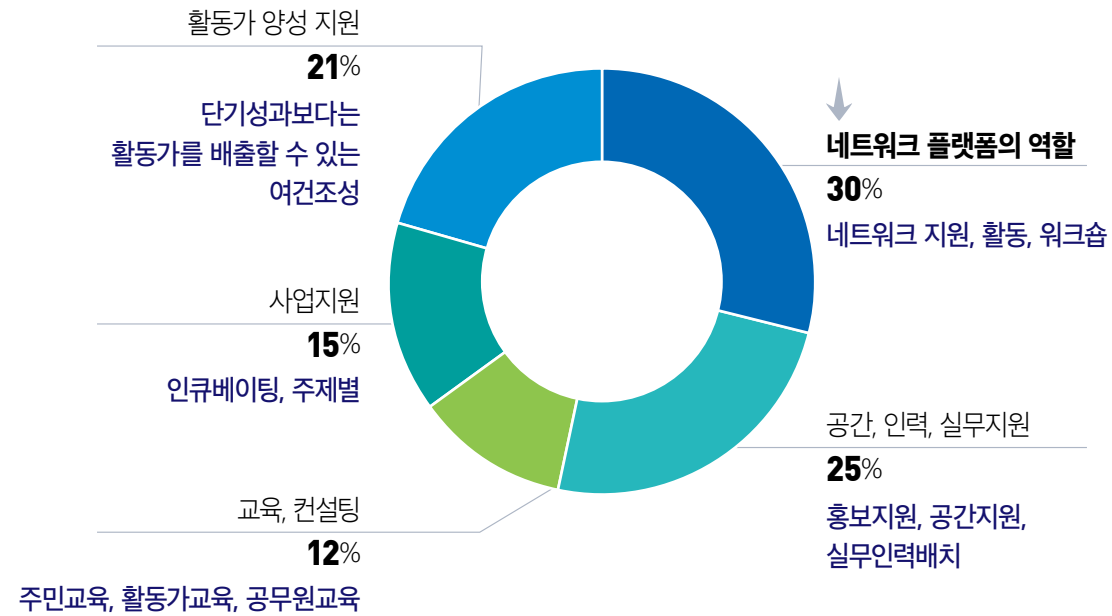
- 비경원축의 경우, 기후위기와 지역환경 > 공동체 가치 회복 > 평화, 통일 > 개발 이슈 > 정치적 문제 순으로 나타남.



센터에 바란다

- ▶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간, 인력, 실무 지원이 높게 나타남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 활동가양성지원 등이 뒤를 잇고 있음



5 인터뷰 질적 분석

생태환경이슈가 경기북부 공익활동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

- ▶ 접경도시로서 개발이 억제된 경기북부의 특수성은 역설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제공했으나 2000년대 이후 경기북부까지 개발이 확산되면서 생태환경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
- ▶ 본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양상 포착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성(상호연결) + 농민운동 기반 + 생태환경의제 중심의 네트워크 활동 경험의 효과로 판단됨
- ▶ 문제는 생태환경이슈를 통한 성공의 경험이 부족하고 행정과 자본의 침투로 인해 오히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해체·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포천 같은 경우에는 축산 악취에 대한 부분도 있다.

포천에 석탄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가 한 3개쯤 있고 축산업은 경기도에서 1-2위를 차지한다.

지역사회문제에 관해서는 주로 환경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센터나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이 지역문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인데 산업폐기물 이런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갈라지고 있어요

지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문제로 인해 싸우고 있다.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니 시청에 가서 항의시위를 했죠.

소각장을 이전지로 뽑힌 지역에서는 7~8가지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또 와야 되냐.

”

경기북부 시민사회 논의에서(현실)“정치”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

- ▶ 시민사회가 정치의 중요한 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현실정치가 상호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언급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
- ▶ 정치에 대한 주요 내용도 협치, 협력적 거버넌스의 맥락보다는 갈등과 지역사회 내부에 시민사회에 대한 반감과 적대에 대한 어려움 중심
- ▶ 시민사회를 다각적으로 제약하는 경기북부의 정치와 행정 구조에 대한 고민과 논의 그리고 해법 모색의 필요성(경기북도 논의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 발전에는 00 시장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의원이라도 하나 바뀌어야 한다.

일단은 정치지형의 변화 또는 정치이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시장님을 뵈었는데 일단은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기대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민관협력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일수록 지자체의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빨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빨갱이 소리를 되게 잘해요. 관에서까지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공익활동이라기보다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지역정권이 한번도 바뀐 경험도 없다. 지역에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00지역이 좀 정치적으로 보수색이 강해요.

우리가 애써서 조례를 만들고 기관을 만들기도 했지.

우리가 마음에 안든다고 행정의 기준을 막 바꾼다니까.

예전에는 시민사회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됐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시민사회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뺏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여가지고 못하게 하죠.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상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요.

행정이랑 친하면 교육비, 활동비, 유지비까지 다 지원받는데, 나머지는 그냥 끈 떨어진 연처럼 힘든 건 상황이에요.

보조금을 받으면 행정이 잘못 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정치권의 인식이 시민단체나 공익활동을 바라보는 게 편협하고 자리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자기 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하고 색깔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상황에 휘둘리는 거예요.



개별적 의제운동보다는 지역문제 중심의 고민이 자주 표출

- ▶ 다양한 형태의 지역성(지역에 대한 애착, 장기거주, 애향심 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
- ▶ 다른 한편으로 경기북부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문화적 측면과 감정의 문제들이 공익활동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지역”을 더욱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 발생
- ▶ 청년활동가들은 지역과 의제가 아닌 “나”로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경로가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관계와 공동체가 뒷받침되면서 공익활동이 시작되고 지속되는 것은 기성세대 활동가들과 유사한 양상



00이 이주민 비율도 높아지고 장애인 비율도 굉장히 높다.

00은 계속 서울에서 밀려들어오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것에서 오는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가 살기가 굉장한 편찮은 동네예요.

나는 어디 멀리가지 말고 마을공동체 활동하는게 차라리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서는 굳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아가지 않고 이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귀농귀촌을 했는데 여기서 명칭이 들어온 놈들이었어요. 이렇게 색안경을 끼면서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농촌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지역이다.

저는 나로부터 이슈가 시작되는 편이에요.

00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이주민 비율도 높아지면서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갈등이 늘고 있죠.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지역공동체도 형성되는데, 사람들이 00은 왔다가는 지역으로만 생각한다는게 안타깝죠.



기초지자체 그리고 경기 북부 차원에서 네트워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경기북부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아직 맹아기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사회적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네트워크가 포착되는데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은 아니지만) 무관심 등의 감정이 혼재된 양상이 엿보임
- ▶ 협력형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
(협력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입장 vs 이름뿐인 단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적 입장)

“지역 안에서의 네트워크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이 조금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기북부도 마찬가지고요.

네트워킹이나 협력 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뭔가 결과가 확 나온 것은 아직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서로 모여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만들어서 5개 지역을 묶어서 쪽 진행하여 이제 법인화까지 했다.

법인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역량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양삼천을하나의 경제순환구조로 만드는 것을 사회적경제 쪽에서 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오히려 네트워크가 어려운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저분들이 갑자기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이유가 3개 협동조합이 모여야 사업비를 준다고 하니 그 사업을 따려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마이갓이에요.

”

공익활동을 통한 개인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

- ▶ 특히, 개인 차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균형감각을 배웠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견해가 틀려도 인정하고 맞춰 나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활동을 하면서 의정부시가 변화하고 시민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다.

활동을 통해 내면적 성장이 이뤄졌죠.

내 삶 안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서 굉장한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

이 우주에 깃든 모든 생명체가 스승이 아닌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배우는 것들이 많고 나를 성장하게 했다.

경험을 채워나가다보니 사람으로 많이 성장했다.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실무적인 능력, 다양한 인간 관계 같은 것은 남았네요.

공익활동의 어려움(1): 다양한 개인적 어려움

- ▶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워라밸, 인간관계 등의 개인적 어려움 호소(경원축)
-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준비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췄는가 하는 고민들이 포착 (비경원축)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가외 시간에 내 개인의 일에 힘을 쏟고 싶다는 마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인간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해가 없으면 공익활동을 하기 어렵죠. 돈을 잘벌기를 하나, 같이 시간을 보내길 하나.

함께하는 그룹들이 갖고 있는 가치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 문제가 제일 힘들어.

회비로만 운영하다보니, 인건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없죠.

활동가들도 주기적으로 재교육도 받고 역량을 강화해야지 행정한테 무시받지 않고 주민들에게도 당당히 참여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공익활동의 어려움(2):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

- ▶ 모든 시민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3부족(공간, 사람, 자원) 문제는 경기북부에서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소위 말해서 사람이 재생산이 안 되는 양상이 크다.
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세대 간의 벽을 넘어서 좋은 가치를 후배들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이죠.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활동가 부분이 가장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회의를 해도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계속 집중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니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힘든 상황이야.
먹고사는 생활이 안되는데 공익활동을 하자고 할 수 없죠.
얼마전만해도 사무실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씩 떠나고 몇 명이 단체를 운영해요.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업을 부업처럼, 공익활동을 본업처럼 해야하는데, 저는 그렇다 쳐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할 일은 아니라.
코로나 이후 관계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헌신에 대한 거부로 후대양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도 막내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막내 그룹에 속해요. 그만큼 후대 활동가들 유입이 안됐다는 거죠.”

공익활동의 어려움(3): 네트워크 활동

- ▶ 네트워크를 할 시간, 사람, 자원, 콘텐츠도 없는데 네트워크를 하고 난 이후 효능감이나 성취감도 떨어지고 특히 상호불신이 강화되는 역설 발생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공동의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의 공으로만 다 가지고 가서... 이런 경우에 같이 해야 하는지가 고민이 생깁니다.”

지역에 대한 텃세라고 할까요? 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하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편가르기가 심하다. 끼리끼리 놀면서 잘 안 꺼주려고 한다.

왜 너네가 먼저 나서냐 이런 좋지 않은 시각들도 있었어요.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단체들이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것이지 저는 연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 알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뭘 또 네트워크를 하라고 합니까. 해서 좋은 것도 없는데.

네트워크를 하려면 우리부터 중심을 딱 잡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협력을 버겁게 느끼는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도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고, 도 그게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참여하겠죠.

가봐야 말만 많고 서로 우리가 잘났네 하면서 목소리 키우는 데를 누가 가겠어요.”

공익활동의 어려움(4): 시민참여 부족

- ▶ 시민참여의 부족은 시민들의 시간빈곤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공익활동 자체의 한계에서도 원인이 있다는 인식 포착

“시민들은 일상이 바빠다보니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지 않지요.
현실적인 벽은 동지를 만나기 어렵다.
사람들은 변하는데 관성화 된 운동을 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
회원이 잘 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
회원이 늘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공익활동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색안경을 끼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여를 얘기하려면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그만큼 평소에 가치 중립적이고, 실천적이었나하는 반성도 필요합니다.”

동네에 관심 있어 한번쯤은 나올 수 있지만, 계속 나오게 하려면 뭐가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익활동의 어려움(5): 뜨거운 감자 ‘보조금’(비경원축)

▶ 보조금에 대한 양가적 감정 포착

- ▶ 활동가와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하나의 과제이며, 이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보조금을 받으면 행정이 잘못했을 할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안받아. 보조금 없이 회비로만 운영하니 힘들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보조금이라는 당근을 쉽게 뿌리치긴 어려워요.

보조금을 받는 순간 행정에 코가 꺾이는 거고 행정도 보조금으로 우리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시민단체라고 하면 정부나 선출직들을 향해 큰소리도 내고 사회변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이나 위탁사업으로 얹혀있으니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죠.

지원사업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제약이 많아지겠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1): 문을 열고 나와라!

- ▶ 현장성(찾아가는 + 현장을 이해하는)과 개방성(수시로 소통하는 + 모두에게 열려있는)에 대한 요구
- ▶ 경기북부의 넓은 면적, 소수의 활동가 풀(pool) 등을 고려했을 때 기다리는 센터가 아니라 찾아가는 센터가 되기를 원하는 욕구 포착
- ▶ 비경원축의 경우, 센터 자체를 잘 모르거나 방문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조금 더 주도적으로 현장에 오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 자신들만의 리그를 하지 말라.

일단 시민사회단체들과 친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수시로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면 좋겠다.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활동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계획수립 하고 점검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지역에 오셔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오라고 하지 말고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자꾸 찾아와서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모릅니다.

센터는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해 협업할 수 있는 창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합니다.

기초지자체의 공익지원센터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알아가는 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 다 좀 불러주셔서 가지고 좀 구경 한번 갑시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2): 따뜻한 손길을 달라!

- ▶ 공익활동가들의 갈등과 상처에 주목하는 따뜻한 중간지원조직
- ▶ 중간지원조직의 어정쩡한 포지션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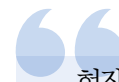
활동가들도 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례적으로 힐링프로그램. 우리 활동가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힐링이 되고 고민들을 나누면서 해결 방법을 찾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갈등이 좀 있어서 이런 것을 (센터가) 중간에서 좀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센터 역할이 중요하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3): 네트워킹의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 ▶ 단순히 기회나 장을 만드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다수 발견
- ▶ 좀 더 세밀하게는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구심점” vs “장” vs “촉진자” 등으로 미세한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 네트워크의 성격에 대해서도 이견 존재. 엄근진(교육, 네트워크, 협력) vs 놀이(파티, 맥주, 담소)로 분화



현장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적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거의 없었다.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만나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지는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센터가)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면서 교육, 네트워크, 협력의 프로세스를 하면 좋겠다.

무언가 협력을 경험을 자주 제시하는 곳이면 좋겠다. 단순 교육이 아니라 단체 간 협업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

네트워크를 지역상황이나 조직의 여건 등에 맞게 세분화하여 추진하면 좋겠다.

시민사회단체 얼굴보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맥주 한잔 하면서 가볍게 모일까 하는 것...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 줄려요. 그냥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센터가) 으쌰으쌰할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각 지역의 맞는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지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만남의 기회를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작.

연수를 잘 설계해 줘서 어디 지역에 가면 쉽도 되고 재충전도 되고 좀 배울 수도 있게.

다양한 단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위한 플랫폼.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만나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 지는데 역할을 하면 좋겠다.

물리적으로 엮으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만들어야.

센터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익단체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나 경기 북부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를 서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안에서 복닥거릴 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례들 또 다른 지역도 갈등도 있었을 거고 회복하는 어떤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좋겠지.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카이브 구축, 시민단체들을 묶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자체별 로도 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그리고 활동가들이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격려도 하고 힐링도 하고 있는 활동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좀 적극적으로 지원.

성과공유회 같이 지역 활동가들이 다 모여서 서로의 사업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과공유회든 활동 박람회든 이름이 어떻든 간에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죠.

활동가들한테 좀 이렇게 좀 잘 닿아 있으면 좋겠어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4): 인력양성

- ▶ 세 가지 측면의 욕구가 나타남. 첫째, 특정 단체활동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역할을 하는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 둘째,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진활동가 육성의 역할 + 활동가 역량강화 욕구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거나 촉진자역할을 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기북부라는 곳이 그런 활동가들을 만나기 쉽지 않고 소수고 굉장히 취약하다.

활동가를 키워내고 인력양성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북부는 어디든지 인력난이다. 너무 많은 단체가 난립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부족하니까...

젊은층에게 활동가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것을 직업화하는 교육을 한다던지 이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바란다!(5): 지역공간 마련에 대한 관심

- 실제의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
- 단체가 있지만 사실상 개인활동가이거나 프리랜서들의 연합처럼 운영되는 곳에서 특히 공간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경원축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 가능했던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아쉬움 표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연대에서 모일 수 있는 공유공간, 공동의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이 없으니까 자주 000에서 대관하는데, 여기밖에 없으니,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전에 대관이 잘 되던 공공장소 대관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논리죠.



1 소결

-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시민사회에 관한 인터뷰 기반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짐
 - 현재 경기북부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그나마 있는 연구도 지역경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임
 - 이번 연구를 계기로 경기북부의 지역시민사회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 경기북부 지역시민사회와 공익활동기반은 여러 가지로 취약하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의 개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
 -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센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현장 활동가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유무형의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경기북부 지역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경기북부의 공동 관심사인 생태문제(예를 들어, 경기북부 생태적 공동실천사업 연구 등) 등 지속적인 후속연구 필요

2 제언

커먼즈(Commons)로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만들기

-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체를 경기북부의 공동자산으로!
- “계획수립-사업집행-평가/피드백”센터의 운영 전반을 경기북부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방안 모색

- ▶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 공유지의 희극으로 : 만들 때만 뜨거운 중간지원조직이 아니라 기간 내내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 ▶ 운영위원회(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에 더하여 집행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다양한 공익활동가의 참여의 틀 구축 필요
- ▶ 지역별 센터방문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와 같은 소소하지만 문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도 제안

다양한 복수의 네트워크(들) 상상하기

- ▶ 기존 단체의 다양성 + 개인활동가의 확대 + 기성세대와 무언가 다른 청년활동가들의 등장 → 과거처럼 하나의 네트워크로 포괄하기 어려움
- ▶ 네트워크의 정도, 콘텐츠의 성격 등에서 단일하지 않은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을 모색하고 지원할 필요
- ▶ 기초지자체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지 말고 경기북부의 틀에서 지역 안팎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네트워크 활동 지원
- ▶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기본 틀만 구성하고 개별적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통해 기본적인 공공성 확보와 함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모색
- ▶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참여 인센티브 제공 추가 제안

경기북부에(多)거점 공간 확보하기

- ▶ 수원이 아니라 의정부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리적 거리가 너무 먼 현실. 물리적 거리로 인한 여러 문제점 존재
- ▶ 공간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도 필요하지만 시간의 문제를 고려할 때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현실적 방안

- ▶ 관련 조례와 정책제언, 행정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거점공간(미이용또는 저이용공공공간 활용)을 마련하는 방안 모색

지역문제 중심형 지원사업 고민하기

- ▶ 마을단위부터 기초지자체까지, 공익활동가들의 주요 문제의식은 모두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의제중심성이 강하지 않음)
- ▶ 지역문제해결형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활동가들이 좀 더 지역에 깊이 배태되고 지역문제해결을 통해 좀 더 발언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
- ▶ 공익활동가와 지역연구자들이 결합하는 방식, 리빙랩 등 지원사업방식에 대한 숙의공론 필요
- ▶ 찾아가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사업 등 추가 제안

경기 북부 지역대학들과 파트너십 구축하기

- ▶ 공익활동에 보다 풍부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신진활동가를 육성하는데 유의미한 공간으로서 지역대학
- ▶ 경기 북부의 지역대학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 ▶ 대학 내 수업개설, 지역사회공헌활동 등 대학 자원을 지역사회로 끌어들이는 한편 인턴십, 활동경력인정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제공하는 호혜적 교환모델 구축

아카이빙지원사업

- ▶ 경기북부에서는 오랜 농민운동, 환경운동 등의 경험과 역사가 존재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고령화와 맞물려 기억이 사라질 위험성도 포착됨
- ▶ 접경지역으로서 소외되었다는 의식이 큰 지역으로서 공익활동 역시 유사한 심성 구조 존재. 경기 북부 공익활동의 목소리를 아카이빙을 통해 잘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판단됨
- ▶ 아카이빙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해당 지역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공동체성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도 존재

부록

인터뷰 질문지

1

공익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왜 공익활동을 지속하여 하고 있는가?

2

현재 귀하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공익활동가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3

귀하의 지역에서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의제는 무엇인가?

4

경기북부의 공익활동가와 단체 간에 어떠한 협력이 필요하며 왜 필요한가?

5

경기북부 공익활동가(단체)들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6

경기북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록

경기북부 공익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경기북부지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가평)의 공익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에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므로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 결과는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사항에 ☒ 표시하거나 직접 적어주십시오.

1. 활동지역

① 의정부 ② 양주 ③ 포천 ④ 동두천 ⑤ 연천 ⑥ 남양주 ⑦ 구리 ⑧ 가평 ⑨ 고양 ⑩ 파주

2. 단체형태

① 등록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기업 ③ 예비사회적기업 ④ 사회적협동조합
⑤ 일반협동조합 ⑥ 작은도서관 ⑦ 임의단체 ⑧ 소속단체 없는 개인활동가

3. 활동영역 (복수응답가능)

① 마을공동체
② 사회적경제
③ 도시재생
④ 환경
⑤ 인권

⑥ 평화·통일
⑦ 장애인
⑧ 여성
⑨ 문화예술
⑩ 사회복지

⑪ 교육·연구
⑫ 청소년
⑬ 보건의료
⑭ 노인
⑮ 기타()

4. 개인의 공익활동 기간 (본인 판단대로 작성)

5. 향후 공익활동의 지속여부

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② 잘 모르겠다 ③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 ④ 기타

5-1. 귀하의 공익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건강상의 어려움 ③ 가족의 반대 ④ 활동이 잘 진행되지 않는 좌절감
⑤ 사회적인식부족 ⑥ 기타

5-2. 귀하가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개인적 신념 ② 활동에서 오는 만족감 ③ 동료와의 관계 ④ 사회변화에 대한 믿음 ⑤ 기타

6. 소속 단체의 설립연도 또는 활동기간

6-1. 소속 단체 실무자의 유무

① 있음(명) ② 없음 / 실무자 근무 형태(상근, 반상근, 비상근) 추가

6-2 소속 단체 전용 공간(사무실, 회의실 등)의 유무

① 있음(민간임대) ② 있음(공공공간 활용) ③ 없음

6-3 소속 단체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노트북, 빔, 프린터기 등) 구비 관련

① 충분하다 ② 적정하게 있다 ③ 부족하다

7. 활동 지역 내 행정과의 거버넌스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1. 활동지역에서 행정과의 거버넌스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행정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부족 ② 공익활동에 비우호적인 지역분위기
③ 관련 적절한 제도와 정책의 부족 ④ 리더의 인식부족 ⑤ 단체의 역량부족 ⑥ 기타

8. 귀하가 활동하는 지역의 현재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경기 북부 지역에 어떤 공동 의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⑤ 기타

9-1. 경기 북부 지역의 공동 의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접경지역(남북한, 미군부대 등) ② 낙후지역(주로 경제) ③ 소외지역(의사결정에서 배제)
④ 좋은 자연환경 ⑤ 이주민 노동자 ⑥ 기타

10-1. 소속 단체의 회원 숫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① 이전에 비해 회원이 늘어났다 ② 비슷한 숫자로 유지되고 있다 ③ 회원 숫자가 감소했다

10-2. 신규 회원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기존회원소개 ② 공개모집 ③ 기타

10.

조직재생산

10-3. 상근자는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① 회원 중 선택 ② 회원소개 등 관계망을 통해 외부에서 충원
③ 공개모집 ④ 기타

10-4. 신규 회원 및 상근자의 충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잘 되지 않고 있다.

	11-1. 조직 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조직역량 강화	11-2. 조직 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십니까? ① 자주 이용한다 ② 가끔 이용한다 ③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④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11-3.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② 교육비용을 지원한다 ③ 기타()
	12-1. 활동지역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자주 하고 있다 ② 가끔 하고 있다 ③ 거의 못하고 있다 ④ 전혀 못하고 있다 ⑤ 기타()
	12-2. 활동지역 내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12-3. 활동지역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시간이 없다 ② 같이 할 단체가 없다 ③ 모일 공간이 없다 ④ 함께 할 콘텐츠가 없다 ⑤ 기타
12.	
민간	
네트워크	12-4. 경기북부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① 자주 하고 있다 ② 가끔 하고 있다 ③ 거의 못하고 있다 ④ 전혀 못하고 있다 ⑤ 기타()
	12-5. 경기북부 내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12-6. 활동지역 내 다른 공익활동 조직과 네트워크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시간이 없다 ② 같이 할 단체가 없다 ③ 모일 공간이 없다 ④ 함께 할 콘텐츠가 없다 ⑤ 기타
	13-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몰랐다
	13-2.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활동가 지원 ② 공익활동단체 지원 ③ 시민사회의 편에서 행정과의 소통창구 ④ 활동가 양성 ⑤ 좋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⑥ 경기북부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성 지원 ⑥ 기타()
13.	
경기도공익 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	13-3.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지부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① 교육 ② 공간 ③ 예산 ④ 자원인력 ⑤ 기타()

참고문헌

박상필(2012), “1990년대 이후 한국시민사회의 발전 :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7호

신진욱·정보영(2022),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 위기, 혁신의 삼중과정-전략적 행위장 이론에 기초한 구조변동분석”, 시민과 세계 40호

주성수(2017), “한국 시민사회 30년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NGO 15집1호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1), <경기도형 마을공동체 경기북부집경지역
모델개발연구 최종보고서>

동두천시(2022), <2022년 동두천시 사회조사보고서>

사단법인 시민(202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202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양주시(2022), <2022년 양주시 사회조사보고서>

연천군(2022), <2022년 연천군 사회조사보고서>

의정부시(2022), <2022년 의정부시 사회조사보고서>

포천시(2022), <2022년 포천시 사회조사보고서>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발행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발 행 2024년 12월



전 화 북부 031-853-9766, 남부 031-267-4340

홈페이지 www.gggongik.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PIS202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ggongik2>

블로그 <https://blog.naver.com/gggongik>

경기북부 공익활동가 관계망 형성을 위한 기초조사

2024. 12.

